

제 2 부 북한에서의 11 년(1935-1946)

우리 조상님들

내 외할아버지는 학자였고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다고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그래서 샘표간장 회사 사장님도 내 외할아버지의 제자라면서 서울에 살때 명절이면 간장을 선물로 가져오셨다. 목정동에 있던 샘표간장 회사 앞에다 우리 어머니와 올케가 작은 자파상을 하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나의 외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궁궐에서 연금이 나오면 돛자리를 깔고, 관복을 차려 입으시고 궁궐 쪽을 (잉금님) 향해 절을 하신 후 그 연금을 받으셨다 했다. 이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관리를 하신 것으로 짐작해 본다. 그당시는 학자라야 정승같은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 두분 (나의 외삼촌들) 다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들었다. 나는 해방 후에 외할아버지의 큰 아드님이신 나의 큰 외삼촌을 뵈었는데 그분도 학자였고, 키가 크시고 인물과 체격이 꼭 장군 같이 생기셨고, 점잖으신 어르신이셨다. 나는 외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나 외삼촌을 뵈오니 외할아버지의 모습과 인격을 짐작해 볼 수있었다. 우리올케는 내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는데 큰 외삼촌하고 비슷한데 체격이 더 출중하신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작은 외삼촌은 애석하게도 청년시절에 세상을 뜨셨다고 들었다. 외할머니는 사진으로 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분의 모습과 비슷했다. 어머니와 외삼촌은 별로 닮은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친할아버지는 금강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부인이 두분계셨고, 노년에 누구에게 저격을 당해 그 여파로 별세하셨다고 들었다. 금광을 하고 갑부가 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원한을 샀는지도

모를일이라고 짐작해 본다. 우리 친 할아버지를 나는 기억못하고, 그분이 낳으신 나와 직계인 그분의 아들과 딸, 즉 우리아버지와 그의 여동생, 즉 내 고모를 나는 기억한다. 내 모습이 내 고모와 닮은 것도 같다. 나는 고모님을 자주 못 뵈어도 내 고모를 좋아했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낳은 자녀들을 나는 본 일이있다. 그 중에서도 종천이 어머니라고 불리우고 내가 "언니"라고 부르던 분과는 친하게 진했었다. 사실 우리아버지의 배다른 동생이니 내게 고모가 되는분이시다. 그의 오빠들은 이북에서 월남을 못했었다. 그집 식구들은 모두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 남편 차씨도 무척 명석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종천이도, 혜경이도 모두가 천재들이라고 했다.

우리식구의 모든 소지품이 6.25 전쟁때 불에 타 없어져서 우리에게는 전쟁 전의 사진 한장도 남아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 식구의 과거의 흔적에 관해서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어른들에게서 들은 것과 내 마음에 남은 기억뿐이다.

우리아버지

1899년 7월 18일 생인 김인원,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미남은 아니었으나 보통 키에 피부가 희고 말쑥이 없으셨다. 아버지는 금강하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여자들과 놀기를 좋아하는 호남이었던 것 같다.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신 후에도 함남고보를 계속하면서 기생집을 드나들고 기생첩을 두었다는 점으로 보아 공부를 하는 충실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간다. 아버지는 첫 아들을 낳은 후에도 다른 여자와 살았다고 들었다. 화를 내고 때리고 부시는 것 외에 나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그저 끔찍하게 무서운 분으로 기억한다. 내가 지금까지 잊지못하고 기억하는 아버지의 폭력사건들이 있다:

아버지가 간혹 집에 오시면 오빠들의 성적표를 조사하는데 만족치 않아 야단치고 회초리로 때리셨다. 한번은 아이들의 성적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않아 "집에서 애들 공부도 봐주지않고 무엇했느냐"며 어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어디 가서 무엇하다 와서!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질질 끌고가서 아궁이에 어머니 머리를 넣으려고 하셨다. 우리 애들은 모두 울고불며 달라붙어 말렸던 것 같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멎으려고 한다. 그리고 큰 오빠가 장가가던날 밤에 사돈댁 손님들이 주무시는데 잔치떡을 다 뒤집어 엮고 부시는등 난리를 버렸다.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앞집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시도 때도 경우도 없이 참을성이 없고 매우 난폭한 분이셨던 것 같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지옥이었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천국이였다. 몇년에 한번씩 집에 오시면 "진숙아" 하고 이름을 부르는 아이는 나밖에 없었다. 두 아들은 "야" 라고 부르셨다. 술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술 좌석이 벌어지면 나를 불러다가 자기 무릎에 앉치던 일, 그 무릎조차 무섭게 느껴지던 일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우리집에 몇년에 한번씩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는 일 없이,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존재할뿐어였다. 훗날 언젠가 길에서 우리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보았는데 끔찍하게 느껴졌다. 내가 죽을 나이를 먹어가며 이렇게 밖에 아버지를 표현 못하니 미안하고 서글프다.

우리어머니

1898년 음력 4월 26일 생, 내 어머니 박효숙 권사는 6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나셨단다. 위로 오빠 두분 계셨는데 한 분은 내가 나기전에 이미 세상을 떠셨다고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 위로 두 언니 (나의 큰 이모님들)가 계셨다. 그분들이 사시던 고장 이름을 따서 어머니의 제일 큰언니를 우리는 조양 큰어마이 (큰어머니), 둘째 언니를 "지경큰어마이"

아래 여동생 (작은 이모) - 인덕이 어머니이고 상윤이의 할머니- 을 “홍남 아주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 넷 중에서는 셋째 딸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 옛날에 아들들은 다 공부를 시켜도 딸은 학교에 안 보내던 가부장 시절이라 학문을 하지 않으신 분이였으나 샘표간장 회사 사장님이 어릴 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와서 우리 외 할아버지에게 수학할 때 어머니는 그 아이들 어깨 넘어로, 그리고 삼을 삼으시면서, 글을 외우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외우시고, 밥 하면서 부엌 바닥에다 부짓갱이로 글자를 써서 익혀 언문 (한글)을 떼시고 한문도 약간 아신다고 말씀하셨다.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셨다. 경우가 바르시고, 공평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셨다. 그 분 배후의 좋은 부모, 형제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어머니는 20 살에 중매로 함흥의 함남고보 학생이었던 19 살 난 우리아버지와 결혼을 했다한다. 경제적으로는 십리를 자기 땅을 밟고 다닌다는 동네의 제일가는 부자(지주)였지만 첫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항상 다른 여자를 보며, 심하게 구타하는 아버지의 학대로 많이 우시며 한많은 인생을 사셨다. 어머니는 우리삼남네를 거의 홀 어머니처럼 키우셨다. 다음의 사진은 우리 어머니의 중년 시절과 노년시절의 사진이다. 절었을 때 미인이었을 것 같다.



My dear mother
나의 어머니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매우 부지런 하시고, 음식과 바느질 등 못하는 것이 없으신 재능을 많이 가지신 분이셨다. 혼자서 세사람 일 거리를 감당하셨다고 들었다. 얼굴은 아니지만 성격은 내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다. 내가 부지런을 떨 때마다 어머니는 "네가 나를 닮았으니 어찌면 좋겠냐?" 하며 안타까워하시던 일을 기억한다. "내 어머니가 누군가 알고 싶으면 나를 보라" 고 나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내가 기억하기는 나와 어머니 단 둘이 산 세월이 많았던 것 같다. 오빠들은 항상 공부하러 함흥으로, 서울로, 일본으로 떠나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 그런 곳에 자식을 유학을 보내는 것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촛불밑에서 전책(현대 말로 소설)을 읽시던 일과 많이 우시던 일을 기억하고, 항상 소회불량으로 꼴꼴하시고 침을 맞으러 다시시던 일도 기억한다. 한번은 아버지에게 구타당해 허리를 못 써서 일어나실 수 없어서 동네에서 봐드리고, 앞집에서 내게 밥을 함에 담아 업혀주면 그 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밥먹어" 하니 굶어서 죽을 마음을 잡수셨다가 어린 나를 보고 살려고 마음을 고쳐 잡수셨다는 말도 들은 적이있다.

어머니는 유식하신분이 아니라 내 공부를 도와주지는 못하셨어도 밤에 내가 공부할 때 말없이 내옆에 앉아 내가 불을 끌 때까지 바느질을 하시며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자주들은 말은 "이제 그만 불을 꺼라" 였다. 내가 "어머니, 내가 이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쭙 때마다 "니가 한다면 하겠지비" 라고 외마디 반응을 하시곤 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반응은 훗날 내게 스스로 일 해결하는 추진력과 자신감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은 공부를 못하셨지만 누구나 공부를 해야한 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을 공부시키지 않은데 대해 문화적으로 별수 없었지만 항상 아쉽게 생각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데 대해 몹시 부당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안시켜 이렇게 되었지만 너는 많이 배워서 나처럼 살지말야한다" 고 항상 일러주셨다.

젊어서 함흥에 살 때에는 교회에 나가셨다는데 우리가족이 선덕이라는 시골에 이사를 간 후로 교회에 못나가셨다고 들었다. 할아버지 별세 후 많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데리고 선덕으로 옮기셨던 것으로 이해한다. 훗날 내가 예수믿고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다. 그후로 교회에 열심이 출석하셨고, 오장동에 있었던 제일 장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셨고, 장춘동의 신일 장로교회에서 권사로 섬긴 것으로 기억한다. 작은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어 그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건 것으로 기억한다. 교회에서 심방오면 꼭 며느리를 옆에다 앉혔다고 한다. 한마디라도 얻어들어서 믿음을 가졌으면 해서 그러셨다고 했다.



큰 오빠:

1920년 1월 6일 생,
김진호, 내 큰
오빠는 나와 15살
연상이었다. 우리 큰
오빠는 나와 작은
오빠 모습과는
비슷하지 않은,
예쁘장한
미남이었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자상하고
여성적이라서 친척

언니들도 모두 큰 오빠를 좋아했던 것이 생각난다. 모습과 성격이 외탁을 한 모양이었다. 큰 오빠에게서 어머니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가 전해주시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머니가 먼 시장에 다녀오는 동안 애기였던 나를 큰 오빠에게 맡기고 갔다 돌아오면 기저기를 다 빨아 말려서 착착 개 놓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자상한 오빠등에서 많이 컸음이 틀림없다. 큰 오빠는 내게 아버지벌이었다. 큰 오빠는 그당시 서울 유학을 시켜서 보성고보를 나왔다, 그당시 보성고보학생으로 축구로 국가 선수였다고 했다. 한번은 일본과 축구시합을 하기 위해 보성팀이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에 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 한국 측에서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말라" 고 했다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경기를 한 결과 일본을 이겼다고 했다. 일본에 대한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랬을까?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내 콧날이 시큰해 온다.

우리 큰 오빠는 이북에서 피난온 후 어머니, 동생 둘, 자기 식구 (아내와 두 어린 아들) 들 모두 7 명을 데리고 집 고생하다가 군에 입대하면 관사를 준다고 해서 6.25 전쟁나기 2년전에 육사 특기로 입대해서 육사 9기로 제대한 소위였다. 전쟁 전에 방 2 개짜리 관사를 타서 살면서 군인생활한지 겨우 일년이 되는 육군장교였다. 전쟁에서 전사할 당시 오빠에게는 4 살짜리 아들, 영수 (1946 년 8 월 15 일생) 와 2 살짜리 (1948 년 10 월 5 일생) 아들 철수와 26 세 (박유복 - 1924 년 6 월 28 일 생) 의 아내가 있었다. 위의 사진은 6.25 때 어머니와 자기식구들과 형제들을 두고 전사한 큰 오빠이다. 전쟁 후 부산에서 오빠를 만났다는 친척이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받았으면서 오빠 시계와 이 사진을 전해주었다. 이 것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다. 우리 온 가족은 지난 63 년간 이 사진 한장을 쳐다보고 아들, 남편, 아빠, 오빠 모습을 되새기며 아파하며 울며 위로받으며 살아왔다.

작은 오빠

1923년 5월 19일 생, 김진우, 내 작은 오빠는 호적상으로 자신의 나이보다 12년이 연상으로 기록되어있다. 어머니는 항상 나하고 9살 (만 8살) 차이라고 했었는데 전쟁 후의 한국의 호적을 믿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안나가려고, 그 뒤에는 인민군에 안 나가려고 나이들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제 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문 현실이다. 하여튼 작은 오빠는 공부하라고 함흥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 하숙을 시켰는데 그 친척집 식구들에게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게다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러했는지 함흥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 시켰는데 소설만 읽고 공부를 안했다고 전한다.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는가 집에 와서 재수를 하러 다니던 일이 기억난다. 내가 십리를 걸어 소학교 (현재의 초등학교)에 갈 때 작은오빠는 재수하는 학교에 간다면서 나와 어느 지점까지 같이 걸어갔다 방향이 달라 거기서부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일이 생각난다. 작은 오빠는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야단과 매를 제일 많이 맞았다고 한다. 한번은 작은 오빠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나서 "수풀림"자를 다시 외우라고 하니 "부술림"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놈아, 맞아서 부은 것이 서러워서 "부술 림"이냐고 야단을 더 맞았다. 이것을 오빠들은 두고 두고 어른이 될 때까지 이야기하며 놀렸다. 나는 체조, 음악, 미술외에 학과들은 모두 "갑" (현대의 "수" 혹은 'A' 학점)이어서 야단 맞은 적이 없었다.

작은 오빠는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해서 남겨놓은 사진이 별로 없다. 작은오빠는 직장에서 탁구로 국가선수였다고 들었다. 이남에서의 피난생활중에 한번은 두 오빠가 직업을 위한 시험을 치르러 갔다한다. 형제가 앞, 뒤로 나란히 앉았는데 앞에 앉은 작은 오빠가 다리를 더무 떨어 책상이 흔들려서 글을 쓸 수 없어다고 한다. 작은 오빠는 그냥 앉아있을

때에도 다리 한쪽을 떠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큰 오빠는 시험관을 불러 “앞에 앉은 사람에게 다리를 좀 떨어지말라고 말해 달라” 고 부탁했다. 이 이야기를 큰 오빠는 작은 오빠를 놀릴 때 마다 “수풀림, 부술림”하고 함께 사용하곤 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작은 오빠가 암 치료차 시애틀에 1988년 성탄절 부터 1989년 2월 29일 까지 머무시는 동안 억지로 한번 찍은 사진이다. 앞줄 가운데가 오빠이고, 오른쪽이 작은 울케이고 왼쪽이 나이다. 그리고 뒷줄 오른쪽에서 부터 영수, 작은오빠 셋째 딸 경희, 내 아들 용수, 그리고 내 남편이다. 이 사진에 있는 오빠가 항암 치료를 받아 많이 수척해진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작은 오빠의 잘 찍혀진 사진이 없어 서운하던 차에 뒤늦게 한장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다음의 사진이다.



나, 김진숙 (Jean Kim)

나는 1935년 음력 7월 26일 함경남도 함흥시 성청정 3정목 95번지에서 부잣집 삼남매중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우리어머니는 아들 셋을 낳고 나를 네번째로 낳았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 "고것 잘했다"고 하셨단다. 그런데 오빠 하나를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려서 잃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공주같이 10살까지 추운 것과 배고픈 것을 모르로 잘 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부잣집에 시집오셨지만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로 항상 우시며 사시던 어머니와 함께 울며 어머니의 눈물을 밥으로 내 잔뺨이 굼었다고

나는 항상 말한다. 어머니가 우실때면 나도 항상 따라 울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경성 속병을 많이 앓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앓으시던 속병도 따라 앓아서 어려서부터 일생동안 어머니 따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며 살았다. 어머니에 의하면 나는 5살에 백일해를 앓은 다음부터 매 겨울이면 기관지염이 생겨 기침하며 고생스럽게 컸다고한다. 항상 병원에 갔던 일을 기억한다. 나는 어렸을 때 마라리아도 많이 앓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픈 딸로 태어나 몸과 마음 모두 아픈 아이로 자랐던 것 같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많이 앓으며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혹독하게 폭력을 당하며 한속에 사시던 어머니의 눈물속에 잉태되어있을 것이니 어찌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왜 여성 하나를 또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느냐"고 어머니의 자궁벽을 치고 외치며 잉태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여성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 여섯살 때부터였던가 "여자는 왜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에게 맞으며 사는 바보인가?" 라고 어머니를 나무랐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유교를 신봉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태어나 애통하던 한 여성을 보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와 함께 우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왜 여성은 불이익을 체험해야 하는가를 항상 의식하며 자랐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너는 이다음에 커서 밥 지을줄 몰라도 좋고, 시집 안가도 좋고, 애를 못 나아도 좋고, 요리, 빨래, 청소를 못해도 좋다.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서서 학대를 절대로 받지말고 자신있는 여성이 되어 나처럼 살지말라" 하셨다. 나는 이 것이 나의 어머니가 내게 깊이심어주신 여성신학이라고 믿는다. 여성신학이 별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즉 여성으로 지어주셨으니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학대와 불이익을 의식하고, 항거하며, 내가 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우실 때 마다 함께 울었던 것처럼 억울한 여성들과 연대하여 함께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 변호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사는

것이 곧 여성신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여성신학을 안고 잉태되고, 여성신학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고, 여성신학을 안은채 잔뼈가 굵었고, 여성신학을 안은채 늙어가고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나보다 15년 연상인 큰 오빠가 아버지 대신이었다. 그는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주고, 5-6살 때부터 크면 서울유학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서울구경을 시켜 준다면 내 머리 양쪽을 번쩍 들어올리는 장난도 쳤다. 더 크면 미국유학도 시켜준다고 했다. 오빠는 항상 영어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다 야단을 맞은 적도 있다. 나는 대 여섯살 때 동네의 사내 아이들이 못되게 굴면 "아버지에게 일러줄 것이야" 가 아니고 "우리 오빠오시면 일러줄래" 했을 정도로 큰 오빠가 내게는 어른이고, 아버지이고 나의 힘이고 뺨이었다. 큰 오빠만큼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듯 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남자일 수 있었을까? 그는 외가집 선비들을 닮은 남자였다고 훗날 생각해 보았다.

우리 큰 오빠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 공부하고 있었다는데 부자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지 않아 일본에서 너무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어미니 위독"이라는 전보를 쳐서 효자 아들을 불러왔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를 도중하차한 격이 되었다. 지금 내가 기억해 보니 큰오빠는 서양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그 당시 벌써 동생을 미국유학 보낼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으나 어머니와 오빠들의 격려가 내가 구김살 없이 발랄한 여아로 자라도록 해준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여자아이라고 차별을 하지않았다. 오빠들은 어디가면 항상 "이는 내 여동생"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우리 삼남매는 자라면서 형제들끼리 싸워보지못했고,

나는 오히려 오빠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오빠들이 어른들이라서 나는 항상 그들에게 순종하며 자랐다.

우리 고향집

나는 함흥 시내에서 출생했지만 할아버지가 별세하자마자 내가 철 들기 전에 우리아버지는 조상들의 토지가 있는 선덕 (함경남도 함주군 선덕면 명호리 59 번지)으로 이사를 가신 것 같다. 선덕에는 차도 없고 버스를 타려면,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10 리를 걸어가야 했다. 우리집은 "함흥집"이라고 불리웠는데 다른 집에서 좀 떨어진 언덕에 위치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미술가라면 그림을 그리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집 뒤에는 산이 평풍처럼 둘러있었고, 집과 산 사이, 즉 집 바로 뒤에는 작은 과수원이 있었고, 거기에는 주로 홍옥이라는 사과가 열렸다. 나는 어렸을 때 나무위에 기어올라가 까치가 먹던 사과 만 따가지고 내려와 먹었다. 그 사과의 겉은 빨갛다 못해 까만 색깔이었고, 속은 완전히 노랗고 맛은 꿀 같았다. 까치란 친구들은 그런 것만 골라 파먹었다. 그리고 그 뒷산 밑에는 밤나무가 여러개 서 있었다. 밤이 다 익으면 땅에 수두룩 떨어졌다. 새벽에 올라가면 밤이 땅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치마폭에다 하나 가득 따 가지고 내려오던 일이 생각난다. 산 밑에, 즉 집뒷쪽으로, 200 보 거리에 자연 샘이 있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시고 컸다. 우리집 왼편으로 또 약 100 보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과 집 사이에는 작은 집 한채만한 광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개 있었다. 한 방에는 곡식, 다른 방에는 사과, 또 다른 방에는 밤과 다른 것들이 저장되어있다. 또 한방은 어머니가 나들이하실때 옷을 갈아 입으시는 방이었다. 그리고 우리집 앞 뜰에는 코스모스와 다른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한 가운데에는 무궁화 나무를 심어놓고 아버지가 자식은 돌보지않아도 그 나무는 열심히 돌보시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네와 우리는 한 마당안의 두 집에 살았던 때가 있었다. 화장실에 가실 때나

마당에서 무궁화 나무를 돌부실 때 우리아버지가 눈에 띠었다. 그냥 옆집에 사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집 오른 편에는 폭파인 언덕밑에 작은 개울이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곳을 흘렀다. 아버지가 부신 이쁜 접시들은 항상 그 웅덩이로 어머니가 던져넣었던 것을 기억한다. 옆집에 가려면 그 개울위의 작은 다리를 건너서 갔다. 집에는 방이 세 개가 있었고, 부엌도 넓었고, 뒷마당, 앞마당, 옆마당 모두 넓었다. 우리집에서는 아랫동네가 환히 내려다 보였다, 그 아랫동네 멀리 뒷 쪽에는 강이 흘렀다. 거기에서 잉어와 여러가지 고기가 잡혔다고 했다. 우리집에서 앞집까지 언덕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고 영하 40도가 되면 그 눈위에서 나는 썰매를 탔다. 앞집은 500 보 가량의 거리에 있었다. 그 댁에 갈려면 그 동네로 내려가는 큰 길도 있었지만 받고랑을 건너 뛰어서 갔다. 그댁 할머니는 우리머니가 출타 했을 때 나를 돌봐 주셨다. 내가 너댓살 되었을까, 어려서 밀을 닦지 못하면 할머니가 "엎드려" 하고 뒤를 닦아주던 일이 생각난다. 우리앞집은 가난하여 밥을 못하고 조개를 잡아다가 삶아서 저녁밥으로 먹을때 나도 한몫 끼어서 먹던생각도 났다. 그리고 내가 앞집의 조밥이 먹고싶으면 어머니가 이밥을 함에다 담아 얹혀주면 그댁에 갔다주고 그집 조밥을 먹던 생각도 떠올른다. 그댁할머니는 "이밥을 가져오지않으면 조밥을 안 줄까봐 그랬느냐"고 야단치셨고, 어머니는 그 댁에 연노하신 어르신도 계시고 애기들도 있어서 이밥한 그릇이 요긴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신일이였다. 아버지가 와서 집을 부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앞집으로 도망했다. 그 집을 지나면 우리 아랫과수원이 있었다. 그 아랫과수원에는 주로 스미토라는 복숭아가 열렸고, 배나무도 있었다. 그 아랫과수원은 매우 큰 것이었음을 기억한다. 과수원마다 집한채씩 있었는데 아랫과수원에는 과수원를 지키는 독신 노인 한분이 사셨다. 식사는 우리집에 올라오셔서 하셨다. 거기에서 500 보가량 더 내려가면 다른 동네로 가는 길이 여러개로 갈렸다. 오는 쪽으로

구비구비 돌아 반 마일가량 올라가면 우리 셋째, 윗과수원이 있고 그 안에도 집이있었다. 거기에는 주로 국광이라는 사과가 열렸다. 국광은 가을이면 땀던 것 같다. 합해서 세 과수원의 사과나무수가 5천대라 했다. 나는 과수원집 딸이라 사과를 잘 골른다고 할까? 우리는 언덕에 있는 집에도 살았고, 국광이 열리는 윗과수원 집에도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피서지와도 같은 아름다운 곳이 내고향이다. 언젠가 한국이 통일되면 내 손자들이 할머니 교향을 방문할 길이 열렸으면 한다. 그 때 할머니가 그런 대로 할머니의 교향이 그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좋겠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1919년-1945년)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고통하던 제 2차 세계대전 중 해방되기 10년전인 1935년에 태어나서 10년간 그 제도 밑에서 자랐다. 주로 우리들은 36년간 일본에게 압제를 당했다고 말한다. 아이들까지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말을 해야했고, 학교는 일본학교였다. 일본선생, 한국선생, 학생 모두가 일본말로 했다. 나의 일본이름은 가네야마 진숙크였다. 일본국가 "기미가요"를 배우고 천황쪽을 향해 절하는 것을 배우며 학교를 다녔다. 천황 생일날에는 학교에서 맛있는 과자를 나누어주었다. 전쟁을 위해 무기와 총알을 만든다며 집집마다 낫그릇, 낫숫가락까지 모두 걷어 갔다. 이러한 동안 비록 10살 미만의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강자에게 억압당하는 약자의 아픔을 보면서 약자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을 것 같다. 어려서 그 이상을 몰랐지만 어릴때 본 것들이 반일감정으로 속에서 크고 있었음을 누가알았으랴! 늙어가면서 까지 지식인으로서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고 친교해야함을 머리로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일본이 이쁘지않다.

1943년 소학교 (오늘의 초등학교) 에 입학하다

학교에 가야할 아이가 많다고 만 8살에 소학교에 받아주었다. 그 당시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 했다. 내가 다니는 소학교는 우리집에서 10리 떨어진 장거리 (시내) 에 있었다. 우리동네에는 학교가 없었다. 교통수단이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걸어서 등교하는 길밖엔 없었다.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다녔다. 그러나 혼자 걸어가는 때도 있었다. 우리 큰 오빠가 한때는 그 소학교의 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오빠와 함께 걸어 가기도 했다.

장거리 어느 가게에는 우리아버지 우편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집에 오는길에 들려 거기에 들어있는 신문을 아버지에게 가져오는 일이 나의 또 하나의 일과였다. 그 때 아버지는 윗 과수원집에 작은어머니하고 살았었다. 거기에는 배다른 사내 동생도 있었다. 윗 과수원 집은 내가 학교에 가고 오는 중간에 있었다. 나는 하루는 그 우편함에 들려 신문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었다. 오다가 아버지 집에 들려 그렇게 고했다. 그 더운 여름 땀뻘에 도로 가서 가져오라고 하셨다. 거부도, 울지도 못하고 되돌아서 10리를 걸어 지금 금방 온 장거리로 도로갔다. 그날 따라 애들이 호랑이가 나온다고 놀려서 울며 불며 쫓아온 날이었다. 십리길을 혼자 되돌아가서 신문배달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라 하셨다. 그렇다. 우리아버지는 범보다 더 무서웠다. 범도 자기색기는 사랑한다는데.

나는 그 소학교에 다닐 때 여름이면 마라리아를 많이 앓았다. 하루건너 열이나면 선생님이 집으로 가라고 보냈다. 혼자 그 십리를 열나는 몸으로 걸었다. 도중에 너무 떨리고 열이나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길가에 앉곤했다. 뜨거운 여름이었으나 그 햇살은 매우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땅에 들어눕지는 않았다.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나를 항상 업어주셨다.

어머니등에서 몇시간을 정신을 잃고, 앓고, 자고 깨나면 열이좀 식곤 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업으시던 우리어머니의 따뜻한 등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은 나를 등에 업어 위로하시고 여기저기 데려다 놓으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 따뜻한 어머니 등과 하나님 등을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절로 흐른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성인줄 알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공홀하시고, 따뜻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어주시는 어머니의 품성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자연스럽 부를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아버지 같은 무서운 남자 하나님이시라면 난 정말 무섭고 싫거든.

나는 우리 작은 어머니가 낳은 배 다른 동생을 가끔 우리집에 업어왔다. 우리 오빠들은 "그 것 갖다 놓고 오지못해?" 했다. 그애를 업다, 걷다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곤했다. 오빠들은 그애를 무척 싫어했다. 나는 그 무서운 아버지 집과 우리집을 왕래하는 우리집의 유일한 교량이였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사랑과 미움 둘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 그랬을까?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다

1945년 8월 15일, 내나이 10살에 우리 큰오빠는 옛날식 라디오에서 일본천황이 항복했다는 뉴스를 듣고, 펄펄뛰며 기뻐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와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온 민족의 기쁨을 보면서 인간에게 "해방"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해방은 자유와 평안을 가져왔다. 일본군인으로 전쟁에 나가지않아도 되는 자유, 하고싶은 일을 할 자유, 조국을 사랑하고 생각할 자유, 애국가를 부를 자유, 남의 제재없이 모국어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글을 쓸 자유, 눈치 보지않고 행동할 자유, 거주지 자유, 직업의 자유가 곧 해방이었다. 큰

오빠는 "앞으로 영어를 가지고 밥을 먹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게는 어려서 다 이해를 못했어도 "해방, 자유"라는 개념이 뇌리에 깊이 자리를 잡아 나는 그 개념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방 후 우리는 함흥과 선덕을 오가며 살았다. 내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곳이 선덕이다. 해방 후 선덕에서 아침에 떠나면 10살 난 아이의 걸음으로 강을 끼고 산을 돌아 연포를 지나고, 흥남을 지나고, 본궁을 지나 함흥까지 가면 저녁이 되었다. 하룻길이었다. 함흥에 잠시 살았을 때 황금정 소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함흥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동네 사포리라는 곳에 우리 외갓집 큰 아버지가 사셨던 것을 기억한다. 그 옆에다 우리오빠들은 해방후 집을 짓기도 했는데 얼마 안살고 선덕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을 향해 떠났다. 오빠네가 해방전에 낳은 겨우 걸음마를 하는 첫 딸을 데리고 서울에 갔는데 거기서 허벅지에 난 종기가 염증을 일으켜 수술받고 열을 이기지 못해 그날 밤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다. 참 예쁜 여아였다. 그러는 사이에 큰 울케가 둘째 아이 영수를 배서 서울에서 함흥을 오가면서 애기를 해산했던 일을 기억한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큰 울케는 서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영수를 윗 과수원집에 살 때 해산했다. 언니가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나는 사과를 따다 먹으라 하고, 감자를 삶아가지고 가서 먹어야 애기를 잘 나올수 있다고 했다. 그 때 내가 10살이었다. 언니는 지금까지도 삶은 감자를 먹어서 애기가 감자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나왔더라고 말한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나는 지금도 반박한다.

1945년 -1946년을 공산치하에서 살다

해방되었다고 춤을 추던 날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북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소련사람들이 오갔다. 소련사람들은 시계를 팔에다 주렁주렁 차고 다녔다. 그들은 그렇게 물건을 뺏고 훔쳤다고

소문났었다. 우리는 지주라서 가진 것 모두를 뺏기고 언제 누가 잡혀갈지 모르는 위협속에 살았다. 그 동네의 유지인 우리 아버지 친구 몇명은 맞아죽었다고 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재산과 토지만 뺏기고 목숨은 뺏기지않았다. 그 동네를 위해 토지를 내주어 학교도 건축해 주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인심을 얻지 못한 아버지가 자기 소작인들에게서는 인심을 얻은듯 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남에게는 악하게 굴지 않았으니 다행이었다. 밤이면 몰래 소작인들이 쌀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우리가족을 대표해서 10살 나이에, 우리집에는 부역을 나갈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음인지, 아무도 나더러 부역나가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야 하나를 머리에 이고 부역을 나가 나는 우리집을 대표한다고 했다. 우리 형편을 잘 아는 동네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었다. 대야에 담아주는 흙을 이어 나르고 눈에 모를 심으면서 강제노동에 참여했다. 그 때 나는 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순종밖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약자의 아픔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나이에 나는 매우 용감했던 것인지 너무 어려서 순진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 기미가요 국가에서 공산주의 김일성 노래로 변하고, 언어도 동무, 동지로 변했다. 학교에서는 일본말은 완전히 버리라 했고, 김일성장군 노래만 매일 하라고 했다. 그후로 70여년이 흐른 오늘도 나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 노래는 기억한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1년을 견디었다.

소련사람들이 여자들을 겁탈한다는 소문이 나 돌았던 때였다. 우리 과수원에도 심심치 않게 소련군인들이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울케언니를 방안에 숨겨놓고 내가 나가서 군인들을 맞아 무엇을 원하느냐고 몇마디 배운 소련말을 했다. 빨리 가 주었으면 싫어서였다. 때로는 생계란을 가지고 와서 삶아달라고 하면 재빨리 불을 피워서 삶아주고, 때로는 사과를 달라고 하면 재빨리 한자루 따다 주면 가지고 갔다. 10살 먹은 여자아이도 성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련만 나는 내

올케언니를 우선 보호해야했다. 겁이 없었는지 철이 없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와 큰오빠 식구가 공산치하에서는 못산다고 하며 해방되던 1945년 겨울에 이남으로 떠나갔다. 큰 오빠는 배낭에다 영어단어 카드를 넣어 짊어지고 삼팔선을 넘었다고 들었다. 큰 오빠가 영어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다. 내가 영어를 좋아한 것도 그 당시는 어려서 몰랐지만 오빠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올케는 해산하려고 선덕으로 다시 돌아와 1946년 8월 15일에 영수를 낳고 어머니와 함께 그 가을엔가 다시 서울로 갔다. 나는 작은 오빠와 함께 남아 오빠가 일하러 간 사이에 낮에 산에 가서 평생 해본일이 없는 나무를 해서, 동네아이들이 하는대로 새끼줄에 묶어 어깨에 지고 내려와 밥을 했다. 갑자기 가난해 지고, 일꾼들도 다 없어져서 내가 이런 것을 다 해야했다. 나는 울지않고, 못한다고 앓고, 직면한 현실에 충실했던 것 같다. 눈이 펄펄 쏟아지는 그해 겨울 밤에 무서워서 동네 애들을 불러다가 놀자고 한 것이 생각한다. 다음해 1947년 여름까지 작은 오빠와 거기서 지냈다. 그해 가을에 열한 살의 나이에 당시 열아홉살이었던 작은 오빠와 함께 철원까지 기차로 가서 도볼 삼팔선을 넘는 다른 무리들과 합세했다. 안내자 한사람을 채용하여 오로지 밤길, 산길을 걸었다. 아슬아슬하고 무서웠다. 몇 일 밤을 걸었는가 내손은 오빠의 손에 꼭 잡힌채 자면서 걸었던 것 같다. 그러다 산중에서 공산군에게 잡혀 어느 집에 갇혔는데 남자와 여자들을 각각 갈라서 마주보는 방에 가두고 과수군이 지켰다. 나는 남자들이 따로 어디로 떠나갈까봐, 그런 경우에 오빠를 잃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뜯 눈으로 밝혔다.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라며 돌려세웠다. 우리는 한참 집으로 되돌아가는 척 걸어가다가 되돌아서 다시 삼팔선 쪽으로 숨어들어 어느 집에 낮에는 묵고, 밤에 다시 안내자를 대동하여 삼팔선을 향해 걸었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캄캄한 밤중에 산중에서 인기척을 느낀 우리 그룹은 삽시간에 산산히 흩어졌다. 오빠와 나만 남고, 동료들을 간데 온데 없이 산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우리 두사람은 방향도 모르는 캄캄한 산속을 한참 헤매다가 일행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우리를 혼비백산하게 한 사람들은 우리들 같이 몰래 숨어서 걷는 또 다른 그룹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혼비백산하게 한 것이다. 그때 나는 어린나이지만 공산군들을 피해 목숨을 내어놓고 자유라는 것을 찾는 사람들의 심정을 직접 체험했다. 자유가 무엇이길래. 그러나 왜 도망하는지는 알았다. 다 뺏기고, 우리아버지 친구 - 그 동네의 지도자들 - 은 맞아죽기도 했는데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피신해야 한다는 것쯤은다 알 수 있었다. 필사적인 노력 끝에 우리는 삼팔선 한탄강에 이르렀다. 한탄강 물은 너무도 차가웠지만 희망과 기쁨에 차서 건넜다. 그 강 하나만 건너면 이남땅이라고 해서였다. 강을 다 건넌 다음 발이 닿은 지점이 "이남 땅"이라며 환호성을 올리니 누군가가 다 와서 총살당하고 싶으나면서 조용히 하라고 일러주었다. 거기서 또 얼마를 걸었는지 검문소에 도착했다.